

## Prologue

어두운 방 안, 스탠드 탓에 밝은 책상 앞.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영. 날개가 달린 연주하고 있는 천사 도자기 인형이 보인다.

영은 이마를 짚고 있다.

스탠드의 등근 빛 아래로 지난 모의고사 성적표와 연습용 모의고사 시험지가 놓여 있다.

자세를 고쳐 앉는 영.

채점된 국어 시험지를 조심스레 펼친다.

몇 장씩 넘어가는 시험지. 빗금이 쳐진 문항들.

덩달아 굳어지는 표정의 영.

이윽고 한 지문을 펼친다. - 이상, <날개>

스탠드 불빛이 <날개>의 앞부분을 밝게 비춘다.

영: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

영의 나레이션과 함께 벽면에 붙여진 상장들, 트로피들이 보인다. 모두 콩쿠르와 음악대회에서 받은 것이다.

## S#1. 집 - 영의 방(낮)

빛이 잘 들지 않는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영.

영은 잠에서 깬 듯 약간씩 뒤척인다. 영은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아 얇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두어 번 쓸어내리는 영. 영이 정면에서 옆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깨끗이 비어 있는 책상과 책장, 상장이 없이 못만 박힌 벽면이 보인다. 엄마가 문을 두드린다.

V.O. 엄마: 영아? 일어났어?

엄마가 방문을 살짝 열고 영을 본다. 앉아있는 영을 본 엄마.

엄마: 엄마 오늘 일찍 가니까 밥 챙겨먹고. 오늘은 꼭 학원 등록해야돼 알았지?

문을 닫자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현관문 닫히는 소리. 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간다.

## S#2. (과거) 집(낮)

방 나가는 모습 케이스 여는 거 오버랩

바이올린 케이스를 여는 영. 거실에는 보면대와 보면대에 놓인 악보들이 보인다. 선생님과 영이 거실 의자에 앉아있다. 영은 활에 송진을 바른다. 영이 송진을 몇번 바르고 놓는다. 선생님이 영의 활을 가져가 바이올린에 쓱 그어본다.

선생님 : 영아 송진 쥘봐

영은 선생님한테 송진을 건넨다. 활에 송진을 더 바른다.

선생님 : 송진을 충분히 발라야돼. 송진 제대로 안바르면 소리 안나니까 꼭 충분히 발라

영 : 네

영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행복하게 연주하는 영. 영의 연주가 끝나자 선생님이 영에게 말한다.

선생님 : 아, 그 혹시 이번에 콩쿨 더 만나갈래? 시간이 얼마 안남긴 했는데, 콩쿨 준비했던 곡 있으니까 그걸로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영 : 오 진짜요?

선생님 : 나중에 영이가 바이올린을 나중에 더 할 생각이 있다면 도움도 많이 될거야. 여기서 상타려면 연습 진짜 많이 해야돼, 알지?

영 : 네!

### S#3. 집 - 안방(낮)

영이 붕대를 감은 손목을 본다. 손목을 멍하니 쳐다보는 영. 영은 붕대를 감은 손목에 다른 손을 가져다댄다. 영은 손목을 바라보다 책상 밑에 떨어져있는 찢어진 상장 조각을 줍는다.

### S#4. (과거) 집 (낮)

영이 활에 송진을 바른다. 충분히 바르고 난 뒤 활에 잘 묻었는지 체크한다. 영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다. 행복하게 미소를 짓는 영. 영은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연필로 수정할 부분을 계속해서 표시한다.

영 : 여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영은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연습한다.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꼭 누르는 영. 영은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영의 모습. 그 뒤로 소파에 무음으로 울리는 전화가 보인다. 핸드폰에 문자와 알람이 뜬다. 오는 전화에는 학원 친구들, 선생님이다.

영은 눈치를 못챈 채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 S#6. 집 - 영의 방(낮)

영의 방 책상. 영은 상장을 보다 책상 밑으로 내려가 상자 하나를 꺼낸다. 영은 바닥에 앉아 상자 안을 들여다 본다.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한 상자 안. 영은 상장을 하나씩 꺼내서 본다. 콩쿠르와 여러 대회에서 입상했다는 내용들. 대상과 최우수상이 번갈아 나온다. 영의 허리 앞에 쌓여가는 상장들. 상장을 하나씩 찢어 상자에 버린다.

### S#7. (과거) 콩쿠르 대회장(낮)

무대 홀이다. 무대 위에 있는 영만 조명이 비춘다. 무대 커튼 앞으로 영이 앉아서 첼로를 켜고 있다. 영은 행복한 얼굴이다. 영의 손이 멈춘다.

손이 멈추기 무섭게 장내가 잠시 고요해진다. 무대 정면을 바라보는 영. 무대 앞을 바라보며 해맑게 웃는다.

S#8. 집 - 영의 방(낮)

영이 씩씩하게 웃는다. 영의 웃음이 오버랩된다.  
영은 바닥에 앉아 상자의 윗부분을 덮고 박스테이프로 싸맨다.  
상자를 들고 일어선 영.  
방을 나간다. 도자기의 날개 부분이 나가는 모습 뒤로 보인다

S#9. (과거) 집(낮)

방문 사이로 엄마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방 안이 어둡다.

엄마 : 네 영이가 학원을 빠졌다고요? 그럴애가 아닌데... 잘못 확인하신거 아니에요? 아 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진다) 바이올린이요?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엄마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때 영이가 현관문을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방을 메고 트로피를 손에 든 영이 현관문에서 거실 쪽으로 들어온다. 영은 뭔가 기대하는 듯 활짝 웃고 있다. 영이 안방에 다가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영 : 엄마!

영은 주위를 둘러보다 거실 문을 연다.

영 : 엄마! 나 상

엄마 : (영의 말을 자르고) 학원 어떻게 된거야

영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진다.

엄마 : 콩쿨때문에 바이올린 연습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된 줄 몰랐어.

엄마 : 이제 너 마음대로 학원도 빠져? 콩쿨 나가는건 좋은데 공부에 방해가 되진 말아야지. 응?

영 : 그게..

엄마 : 선생님이 오늘 보충수업 오래. 옷만 갈아입고 나가. 그리고 선생님 연락좀받아 핸드폰은 왜 들고다녀?

엄마가 영의 손을 본다. 트로피를 든 영의 손이 보인다.

엄마 : 손에 뭐야? 어머, 상받았어?

영 : 어..

엄마 : 잘했어 우리딸. (살짝 웃는다) 바로 옷 갈아입고 나가.

(엄마가 영의 등을 민다)

영은 방을 나간다. 손에 든 트로피를 보는 영.

S#10. 분리수거장(낮)

부서진 트로피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버려져 있다. (트로피 오버랩)

영이 폐휴지통에 상자를 거꾸로 뒤집어 찢어진 상자들을 본다.

영은 착잡한 표정을 짓는다.

S#11. (과거) 집(밤)

밝은 방 안. 스탠드 때문에 더 밝은 책상 앞. 침대 헤드쪽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 [Prologue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구도로]

영은 들은게 얼마 없는 책가방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낸다. 나의 장래희망과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을 적어 오라는 유인물이다. 영은 엄마에게 종이를 보여준다.

영 :엄마 나 이거 좀 써줘.

엄마 : 뭔데? (표정이 굳어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영 : 응

엄마 : (영의 말을 자른다) 영아. 악기는 취미로도 할 수 있어. 꼭 바이올린 쪽으로 직업을 삼아야 할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땐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수 있어.

영 : 난 지금 하고 싶어.

엄마 : (영의 말을 자른다) 영아.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면 더 좋을까? 10년 뒤엔? 20년 뒤엔? 바이올린 하는게 싫어지면? 돈이 안벌려도 좋아할 수 있어?

영 : 그럼 공부를 왜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고 공부하는거 아니야?

엄마 : 그건 일단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생각해도 돼. 어?

영 : 그게 무슨...

엄마는 웃으며 영을 바라본다. 엄마는 차갑게 웃으며 종이에 적혀있던 바이올리니스트를 펜으로 그어버리고 선생님이라고 적는다.

영 : 엄마!

바이올리니스트 위에 줄이 그어지기 전에 영이 종이를 뺏는다. 펜심에 종이가 찢어진다.

엄마 :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

영 :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뭐가 날 생각하는건데?

엄마 : 영! 군말 말고 엄마말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 S#13. (과거) 학교에서 집 가는 길 (낮)

아파트 근처 도로이다. 영은 교복을 입고 있다. 집에 가고 있는 영. 누군가 뒤에서 영의 어깨를 건드린다. 영이 뒤를 돌아본다. 또래의 한 아이가 웃으며 영을 쳐다본다.

민정 : 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영: 어? 민정언니!

민정 : 딱 년줄 알아봤어. 어때? 요즘은 잘 지내?

영: 어.. 뭐 잘 지내. 언니는?

민정 : 나는 뭐 아직도 바이올린 하고있지. 너 그때 그만두고 나도 과외로 옮겼어.

영: 아 진짜?

민정 : 어. 나 이제 입시 준비하려고. 너는 그럼 약기는 그만하는거야?

영: 뭐.. 그렇지?

민정 : 그때 너 되게 잘했었는데. 뭐.. 너 나이때쯤 슬슬 그만하는 시기니까..

말없이 씩씩하게 웃는 영.

### S#14.길거리(낮)

영이 길거리를 걷는다. 영이 핸드폰 길찾기를 켜서 학원 위치를 찾는다. 영이 주위를 둘러본다. 한 참 걷는 영. 영은 학원 위치와 핸드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영은 핸드폰 화면을 끈다.

### S#. (과거) 동네(낮)

엄마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다. 뒤에서 누군가 불러세운다.

지인2: 영이 엄마!

엄마: 아, 소현이 엄마! 영아, 잠깐만.

지인2: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영이 많이도 컸네~. 올해 몇 살이지?

영: 열다섯 살요.

지인2: 아직도 바이올린 은하고? 상도 엄청 탔잖아. 아는 분 딸내미가 바이올린 엄청 잘کن다고 칭찬하고 다녔었는데.

영: 저... 그만됐어요. 그냥 취미로 하려고요.

지인2: 어머 진짜?

영 : 네..

지인2 : 그러면 영이는 뭐하고 싶은데?

영 : 아 전... 저는...(머뭇거린다) 엄마가 하래서.....

엄마 : 아이 영아!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거 할거래요. 영이야 뭐, 다른것도 다 잘하니까..

지인2: 그래~? 영이는 첼로도 잘 켜고 공부도 잘하고? 다 가졌네, 정말~. 영이 엄마는 좋겠어?

엄마와 엄마의 지인이 소리 내어 웃는다.

따라 웃으려던 영. 웃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본다.

#### S#16. (고등학생) 집 - 영의 방(낮)

영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 책상 주변은 지우개 가루가 쌓여있다. 영은 시험지를 신경질적으로 넘긴다. 넘기면서 봐도 틀린 문항이 많은 시험지. 시험지를 세게 넘기자 손목이 아픈지 손목을 잡는다. 영이 손목을 짚은 채 시험지가 한 장씩 넘어갈때마다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과거.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웃는 장면과 콩쿠르 대회장에서 웃는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도록] 영의 시선이 책상 위에 있는 연주하고 있는 천사 도자기로 간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S#11의 엄마의 말 중 "바이올린은 그만하자." 부분 삽입] 영이 문득 고개를 든다. 벽면에 붙여진 상장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인다. 영은 상장을 쳐다본다. 영이 방 밖으로 나간다.

#### S#17. (고등학생) 집 - 영의 방(낮)

영이 바이올린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는다. 뽀얗게 쌓인 먼지. 영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방을 열어 바이올린을 꺼낸다. 케이스에서 송진을 꺼낸다. 활에 송진을 바르려는데, 송진이 다 떨어지고 깨져 있다.

영이 송진을 내려놓는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영. 왼손으로 자판을 더듬어 가며 손 위치를 잡는다. 영은 여러 번 왼손을 움직이며 손가락에 힘을 준다. 그대로 활을 움직이는 영. 하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영은 핸드폰에서 예전에 연습했던 바이올린 영상을 트는 영. 영은 동영상의 영과 함께 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지만 송진을 바르지 않은 생 활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힘을 줘서 활을 켜려고 하는 영. 손목이 아파온다. 결국 손목을 다시 잡는 영.

활을 켜 영의 손이 떨린다. 영은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한다.

영이 거칠게 활을 움직인다. 거친 소리가 흘러나온다. 동영상의 아름다운 선율과 비교되는 소리.

영이 입술을 깨문다. 움직임이 더딘 손과 잘 잡히지 않는 현.

눈물이 흐른다.

영(Nar):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영이 바이올린을 그대로 놔둔 채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시험지가 펼쳐져 있는 책상, 상장이 붙어 있는 벽면, 트로피가 놓여 있는 책장을 차례로 바라보는 영.

이내 상장을 전부 떼고 트로피를 바닥에 던진다.

찢어지는 몇 장의 상장과 부서지는 트로피. 깨진 천사 날개 도자기.

상장과 트로피 조각으로 지저분한 바닥을 바라보는 영.

영의 시선에 깨진 도자기의 날개 부분이 고정된다.

영 : 내 날개는…….

S#20.안양예술공원전망대 (점심쯤에서 오후)

전망대 밑에서 위쪽으로 시선이 올라간다. 높아보이는전망대. 영이 바람을 맞으며 서있다. 전망대 맨 위에서 난간에 다가가 밑을 잠시 내려다본다.

옷을 걷어 왼쪽 손목을 본다. 붕대가 감겨 있는 손목. 손에는 깨진 날개 조각과 국어 모의고사 지문을 쥐고 있다. 보이는 '날개' 지문. 영은 손에서 모의고사 지문만 떨어트리고 조각은 손에 꼭 쥐다.

영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영(Nar):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다시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영이 전망대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전망대 아래로 내려간다.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영의 발이 땅에 닿는다.